

원발성 폐암의 외과적 치료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구본원 · 허동명 · 전상훈 · 장봉현 · 이종태 · 김규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92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원발성 폐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 의무기록이 비교적 충실한 예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00례를 대상으로 임상분석과 술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남자가 86례, 여자가 14례로 남녀성비는 6:1이었고, 연령별로는 60대가 43례, 50대가 27례, 40대가 18례, 30대가 5례, 70대 이상이 7례였으며, 평균은 58세, 최연소자는 34세, 최고령자는 81세였다.

술전 임상 증상은 대부분이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 혈담, 호흡 곤란, 흉통 등이었고, 무증상이 18례였다. 진단 방법으로는 기관지경검사에 의한 생검(49%), 전산화 단층촬영 유도하생검(15%), 경기관지 폐 생검(8%), 종격동경에 의한 생검(2%) 등으로 조직학적 확진을 하였고, 술전 조직학적 확진이 안된 경우가 20례 있었다. 병리 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이 67례로 가장 많았고, 선암이 20례, 미분화대세포암이 6례, 기관지폐포암이 6례, 선편평상피 세포암이 1례였다.

수술은 단엽절제술 55례, 일측전폐절제술 22례, 쌍엽절제술 15례, 단엽수상절제술(sleeve lobectomy) 4례, 구역절제술 2례, 일측전폐수상절제술(sleeve pneumonectomy) 1례 및 일측전폐췌기절제술(wedge pneumonectomy)이 1례였다.

병원 사망은 4례이었고 술후 합병증은 17례였다. 술후 생존율은 1년, 2년, 3년에 각각 77.5%, 56.1%, 43.7%였다.

술후 추적기간 동안에 폐암의 위험인자로서 암종괴의 크기(T-stage), 임파선 전이의 정도(N-stage) 및 폐암 병기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인자였으며, 나이, 성별, 병변의 위치 및 병리 조직학적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였다.